

시세차익 10억 서울 ‘로또청약’ 나왔다… 현금 7억 있어야

〈전용면적 84㎡〉

올림픽파크 포레온

3개평형 4세대 분양… 최대 12.9억 84㎡ 실거래가 23.8억으로 뛰어 오는 10일부터 2일간 무순위 청약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오늘부터 총 39가구 청약 진행

신축 공급이 귀한 서울에서 소위 ‘쥬쥬’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특히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3년 전 분양가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로구 고척동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거주자까지 청약이 가능해 서울 입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뀐 규정으로 두 곳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전용면적 39㎡ 1세대, 59㎡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경.

/전지원 기자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투시도.

/대우건설

1세대, 84㎡ 2세대 등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결과다.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별 여건과 시장 상황 등에 맞게 지자체에 자율권이 있는데 시세차익이 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등은 없지만 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2022년 12월 청약 당시 그대로 적용되면서 타입별로 39㎡A 6억 9440억원, 59㎡A 10억 5190만원, 84㎡E 2층 12억 3600만원, 84㎡E 15층 12억 9330만원이다. 84㎡의 경우 입주 직후인 작년 12월에 23억 8000만 원에 실거래를 신고하며 분양가 대비 10억원 이상

뛰었다. 전세가 올해 4월에 10억 5000만 원에 거래가 된 바 있다. 전용 39㎡는 올해 3월 13억 5212억원에 거래가 됐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할 전망이다. 당첨자 발표 이후 석 달여 만에 잔금 90%를 모두 납입해야 하지만 강화된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6억원이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39가구에 대해 오는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와 84㎡가 각각 19세대, 20세대 등이다.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단지는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총 983세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8월이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 5월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13.5대 1로 전 평형이 해당지역 1순위에서 마감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무순위 청약이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피크아웃’ K-조선, 카타르·인도 시장 공략

올해 LNG선 발주수량 8척에 그쳐 내년 카타르에너지 22척 수주 예상
美 LNG 프로젝트에 수주확대 기대
조선 역량 부족 ‘인도 시장’ 정조준

LNG선 운임비가 하락하며 국내 조선업체의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선사들은 발주 지연을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카타르 석유기업 카타르에너지의 3차 발주와 인도 등 신시장 공략이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7만 4000㎥급 LNG운반선의 정기용선료는 하루 2만 523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만 5000㎥급 선형의 평균 스팟 운임도 하루 3462달러까지 하락했다.

올해 LNG선 발주 또한 8척에 그치며 작년 상반기 65척에 대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발주의 약 70%가 카타르 프로젝트 물량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기

대됐던 글로벌 발주 일정이 지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 발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만큼 내년에는 LNG선 발주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카타르에너지가 7월 중 EPC(설계·조달·시공)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 만큼 최소 22척 규모의 LNG선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미국이 LNG 생산 프로젝트 확대에 나서면서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를 중심으로 LNG선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LNG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주요 수출 거점 구축에 나섰다.

미국 신생 에너지 기업인 코어스탈벤드 LNG는 텍사스에 연간 2250만톤 규모의 LNG 액화 및 수출 단지 개발에 착수했다. 또 미국 메이저 에너지 기업

세브론은 루이지애나주 걸프 연안에서 에너지 트랜스퍼가 개발 중인 레이크 찰스 LNG프로젝트 장기공급 계약 규모를 기존 200만톤에서 300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조선사들은 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도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인도는 전체 무역 물량의 약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국 조선역량이 부족해 연간 약 110조원을 선박임대에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도는 자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협력에 나서고 있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 ‘코친조선소’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코친조선소와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인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인도 및 해외 시장에서 선박 수주 기회도 함께 모색할 전략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오가노이드사이언스, 日 기업과 맞손 ‘아톰·오디에이’ 현지진출 발판 마련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동남아시아에 이어 일본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한다.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오가노이드 기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글로벌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일본의 의약품 전문 유통기업 ‘서밋 파마슈티컬 인터내셔널(SPI)’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전문 유통기업 SPI와 업무협약
오가노이드사이언스 日 총판 파트너

향후 현지시장 시장개척 등 수행키로
동물대체시험·신약개발 등 확대 기대

이번 업무협약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재생치료제 ‘아톰(ATORM)’과 신약평가 플랫폼 ‘오디세이(ODISEI)’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SPI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스미토모(Sumitomo) 그룹 계열의 의약품 사업 개발 전문기업이다. 약 4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스미토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상사로,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500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에너지, 금속, 운송, 인프라,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약 5조엔(약 35조 원)에 달한다.

SPI는 이러한 스미토모 그룹 내 제약·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스미토모의 자본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 바이오 생태계에서 혁신 기술의 도입과 사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임상·비임상 연구 개발부터 제품 허가,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로벌 바이오 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PI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일본 내 총판 파트너로서, 전반적인 영업 활동과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SPI는 향후 일본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마케팅 전략 수립, 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시장 개척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SPI에 기술 및 사업 관련 정보,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고, 일본 고객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SPI는 현지 파트너사 발굴, 시장조사, 고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일본 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재생치료제 ‘ATORM-C’의 일본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ODISEI’ 플랫폼을 통한 동물대체시험 및 신약 개발 평가 솔루션의 수요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SPI와의 협력은 일본이라는 선진 바이오 의료 시장에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혁신 기술을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유통을 넘어 전략적 사업 파트너십으로 일본 시장에서 정밀의료, 재생치료제, 동물대체시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5월 한국 코스닥 시장 상장을 완료한 데 이어, 독일(Lambda Biologics), 미국, 베트남에 이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로 동물대체시험법 및 글로벌 평가 플랫폼을 확장하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주요 14국에 대통령 특사단 파견 검토”

대통령실 “경우에 따라 축소될 수도”

대통령실이 주요 14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각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이라 예년에 비해 파견 국가를 늘렸



다”고 설명했다. 우수석은 “현재 약 14개국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밤미 특사단에는 김종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석은 밤미 특사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선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 후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국가의 특별한 의제를 해

결하기 위한 성격을 띠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특사단을 파견하면 현안과 관련한 여러가지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 관세 협상을 위해선 하나의 채널로 움직이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공식·비공식 관계들을 복원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특사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은 김영배·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독일 특사단에 내정됐으며 이들은 이달 말께 독일로 출국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상화’를 알리고 통상·관세 문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